

<span style="color: red;">↑</span> 코스피	2488.18	<span style="color: red;">↑</span> 코스닥	811.11
	(+1.51)		(+1.75)
<span style="color: blue;">↓</span> 금리 (미국 9년)	3.710	<span style="color: blue;">↓</span> 환율 (원·달러)	1296.90
	(-0.034)		(-3.90)

美中 정상회담  
고위급 군사대화  
재개 합의  
02



202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16일 오후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영복여자고등학교에서 시험을 마친 수험생들이 환한 표정으로 고사장을 나서고 있다. /뉴시스

## 수능 끝... '킬러문항' 없지만 변별력 확보

**202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수험생 50만명, N수생 16만명 응시  
공교육 내용만으로 고르게 출제  
국어·수학 난이도 대체로 어려워

4년 만에 코로나19방역없이 치러진 202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은 정부가 예고한 대로 교육과정 밖 '초고난도(킬러)문항'은 없었지만, 공교육 내용만으로 변별력을 확보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관련기사 16면>**

16일 전국 84개 시험지구 1279개 시험장에서 올해 수능이 일제히 치러졌다. 이번 시험이 지원한 수험생은 50만 4588명으로, 이 중 재수생 등 N수생은 15만 9742명이다. 결시율은 10.6%(5만 3093명)로, 지난해보다 높아질 것으로 예상됐으나 비슷한 수준을 유지했다.

2024학년도 수능 출제위원장이 정문성 경인고대 교수는 이날 출제경향브리핑에서 "교육부의 사교육 경감 대

책에 따라 소위 '킬러문항'을 배제했으며, 공교육 과정에서 다루는 내용만으로도 변별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적정 난이도의 문항을 고르게 출제했다"라며 "교육과정에서 핵심적이고 기본적인 내용을 중심으로 출제함으로써 고등학교 교육의 정상화에 도움이 되도록 했다"고 말했다.

문제는 다소 어려웠다는 평가가 나온다. 올해 첫 수능 출제 기조 분석에 나선 EBS 현장교사단은 올해 수능에서는 킬러문항이 사라졌으며 문항 자체 난도는 국어·수학·영어 영역에서 대체로 높았다고 분석했다. 특히 국어영역은 표준점수 최고점이 134점으로 비교적 평이했던 지난해 수능은 물론, 142점으로 변별력이 강화된 올해 9월 모의평가보다도 약간 더 어려웠다고 EBS 현장교사단은 평가했다. 영어는 작년 수능보다 다소 어렵고, 올해 9월 모의평가와는 비슷할 것으로 예상했다.

입시업계도 '킬러문항'은 없었다고 진단했다. 국어와 수학영역 모두 변별력을 고루 갖춘 가운데, 이과생이 다소 유리할 수 있다는 평가도 나온다.

김병진 이투스 교육평가연구소장은 "현재까지의 난이도 예상이 맞다면 국어와 수학 모두 일정한 변별력을 확보해 두 영역이 모두 중요한 변수로 활용될 가능성이 커졌다"고 평가했다.

임성호 종로학원 대표는 "미적분과 기하의 비슷하거나 어렵게 출제, 확률과통계는 쉽게 출제돼 선택과목 간 점수 차를 좁힐지는 의문"이라며 "수학에서 현재 출제 패턴으로는 이과생이 문과생보다 표준점수를 높게 획득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한편, 과목별 EBS 연계율은 ▲국어 51.1% ▲수학 50% ▲영어 53.3% ▲한글 50% 등 전 과목에서 고르게 50%대를 유지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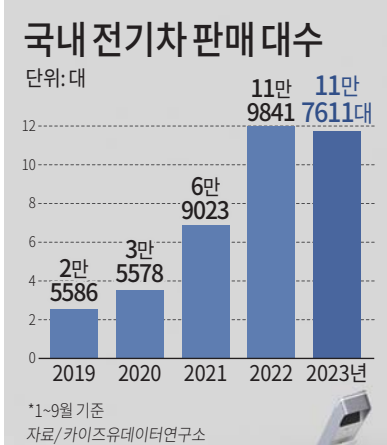
/이현진 기자 hj@

## M-커버스토리

# 충전 인프라 부족에 정부 보조금도 축소

### 흔들리는 전기차 시장

올해 9월까지 11만 909대 등록  
지난해 동기 대비 2.5% 줄어  
전국 충전기 24.3만기 불과해  
1기당 2대 사용, 지방 더 취약  
비싼가격에 지원은 줄어 부담



최근 몇 년 동안 '전기차'는 자동차 시장에서 돌풍을 일으켰다. 글로벌 자동차 시장에서 전기차 수요는 폭발적으로 증가하며 기업과 소비자 모두 이같은 성장을 당연하게 생각했다.

하지만 최근 전기차 시장은 수요가 갈수록 둔화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특히 국내 시장은 전기차 충전 인프라와 정부 지원금 축소 등의 영향으로 감소폭이 크게 나타나고 있다.

### ◆국내 시장은 '심각'...충전·가격 등 부담 확대

16일 시장 조사업체 SNE리서치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9월까지 글로벌 시장에 등록된 전기차는 총 966만 5000대로 전년 동기 대비 36.4%(708만 6000대) 증가했다. 지난해 연간 전세계 전기차 시장 성장률 61.3%에 비하면 성장률은 둔화되고 있다. 국내 전기차 시장 분위기는 심상치 않다.

올해 9월까지 국내 등록된 전기차는 11만 909대로 전년 동기 대비 2.5%(11만 3702대) 감소했다. 반면 내연기관차를 포함한 국산 승용차 판매는 8.2% 증가하며 전기차 시장과 전혀 다른 분위기다.

이같은 문제는 전기차 충전 인프라와 높은 가격과 정부 지원금 축소에 따른 것으로 업계는 분석하고 있다.

국내 전기차 누적 보급 대수는 50만대를 넘어섰지만 전기차 충전 인프라는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다.

통계청 자료를 보면 2022년 기준 우리나라 가구의 66%가 공동주택(아파트·연립주택·다세대주택·오피스텔 포함)에 거주하고 있다.

단독주택 거주 비율이 높은 해외에선 자신의 차고에서 충전할



/유투이미지

수 있지만 우리나라는 한정된 공간에서 충전을 해야하는 번거로움이 있다.

전력업계 관계자는 "신축 공동주택의 경우 충전 인프라 구축에 부담이 적지만 10년이 넘는 공동주택의 경우 설계 시점에 들어올 수 있는 전력량을 적용했기 때문에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추가 전력 확보를 위해서는 비용부담이 클 것"이라고 덧붙였다.

올해 7월 기준 전국에 설치된 전기차 충전기는 24만 3000여기로 단순 계산하면 1기당 2대의 전기차 사용되고 있다. 또 지역에 따라 급속 충전기 1기당 전기차 대수도 많게는 3배 이상 차이를 나타내고 있다. 인천은 급속 충전기 1기로 31.7대, 부산은 33.8대가 나눠쓰고 있는 등 지방이 전국 평균(18.9대)에 비해 소비자들의 부담이 높다.

또다른 문제는 결제수단이다. 정부 보조금 지원으로 시장 구축하면서 다양한 충전 사업자들이 합류했다. 이 때문에 소비자는 충전소마다 할인 비율이나 결제방식이 달라 불편을 겪고 있다.

비싼 전기차 가격과 정부 보조금 축소는 시장 위축에 직격탄을 날렸다.

**<3면에 계속>**

/양성운 기자 ysw@metroseoul.co.kr

## 차기 은행연합회장에 조용병 전 신한금융 회장

은행연합회 회추위·이사회 열고  
만장일치로 단독 후보 선정·의결



회추위에서는 룰리스트(잠정 후보군)로 꼽힌 개개인의 자질과 능력 등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했다.

룰리스트에는 ▲박진희 전 한국씨티은행장 ▲손병환 전 NH금융지주 회장 ▲임영록 전 KB금융지주 회장 ▲조용병 전 신한금융지주 회장 ▲조준희 전 기업은행장이 이름을 올렸다. 윤종규 KB금융 회장도 포함됐으나 고사 의사를 전달하면서 최종 5명의 후보가 경합했다.

이사회는 조용병 전 신한금융 회장을 제15대 은행연합회장 후보로 선정

하고 만장일치로 의결했다.

은행연 관계자는 "이사회는 조용병 후보자를 금융 산업에 대한 폭넓은 이해와 탁월한 통찰력을 바탕으로 은행 산업이 당면한 현안을 해결하고, 대내외 불확실성에 직면한 은행 산업의 발전에 기여할 책임자라고 평가했다"고 설명했다.

은행연은 오는 27일 차기 회장 선출을 위한 사원총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이날 23개 회회사 대표들이 참석하는 총회에서 조 내정자의 회장 선임이 확정되면 조 내정자는 오는 12월 1일부터 임기를 시작하게 된다.

/이승용 기자 lsv2665@

## 바스타비 TV와 함께하는 메트로 뉴스



▲尹 "미래세대 혁신연구 도전 위해 R&D 정책 바꾸는 중" /사진 뉴시스  
▲대통령실, 인요한 '尹측 신호' 언급에 "그런 것 없었다"

▲尹대통령, 헌법재판관 후보에 정형식 대전고법원장 지명  
▲2년째 자택 안치 전두환, 북한땅 보이는데 파주 장산리에 묻힌다



▲김영란법 식사비 한도 오르나... 대통령 언급에 권익위 본격 검토  
▲여당, 김포시 서울 편입 원포인트 특별법 발의 /사진 뉴시스